



# 딱 한마디 로마사

천개의바람 | 정헌경 글 | 순미 그림 | 정기문 감수

## 독서 배경 넓히기

• 다음 <딱 한마디 로마사>의 차례에서 평소 알고 있었던 ‘말’이나 ‘인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모두 써 보세요.

머리말 ..... 6



**로마는 가장 위대해질 운명을 타고났다**

로마 건국(기원전 753년) ..... 8

**권력은 시민에게, 권위는 원로원에게**

공화정 시작(기원전 509년) ..... 18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반도 통일(기원전 270년경) ..... 26

**이제 지중해는 우리의 바다가 되었다**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년~기원전 146년) ..... 36



**로마 시민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고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기원전 133년~기원전 121년) ..... 44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권력을 장악한 카이사르(기원전 48년) ..... 52



**벽돌로 만든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로마를 남기노라**

로마 제국 수립(기원전 27년) ..... 62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 전성기(기원전 1세기 말~기원후 2세기) ..... 70



**한 사람이 다스리기에 로마 제국은 너무 넓다**

4분할 통치 체제 수립(293년) ..... 78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크리스티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 제국(392년) ..... 86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서로마 제국 멸망(476년) ..... 96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로마에서 흘러나왔다**

동로마 제국 멸망(1453년) ..... 104



추천의 글 ..... 112

## 내용 파악하기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찾아 보세요.

1 다음에서 로마 건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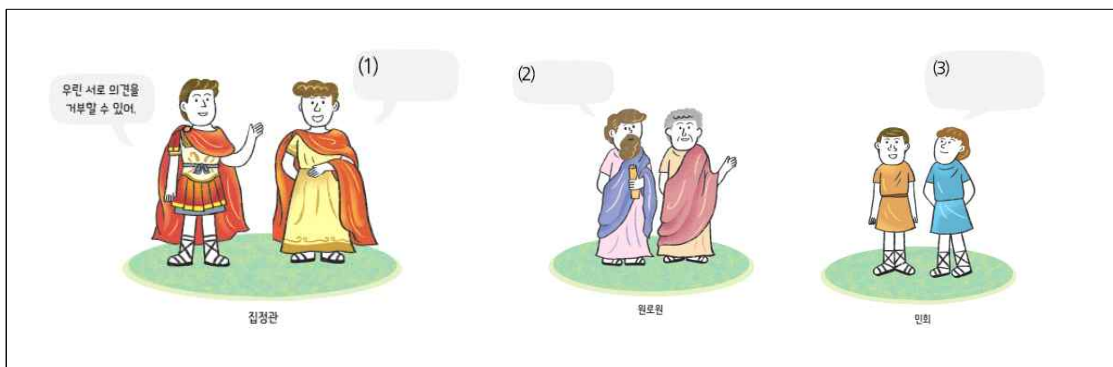
- ① 늑대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웠어요.
- ② 기원전 753년, 이탈리아반도에 로마가 세워졌어요.
- ③ 로마는 큰 나라로 출발해서 점점 영토를 넓혔어요.
- ④ 로마는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좋은 위치에 세워졌어요.
- ⑤ 로마는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한 뒤, 지중해를 손에 넣었어요.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인물을 각각 써 보세요.

- (1) 로마의 역사가 ( )는 ‘로마는 가장 위대해질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했어요.
- (2) 로마의 뛰어난 작가 ( )는 ‘권력은 시민에게, 권위는 원로원에게’라고 말했어요.
- (3) ( )는 루비콘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했어요.
- (4) 로마 제정을 연 ( )는 ‘벽돌로 만든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로마를 남기노라’라고 말했어요.
- (5) 역사학자 ( )는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로마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했어요.

3 다음 말풍선에 들어갈 로마 공화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들끼리 선을 이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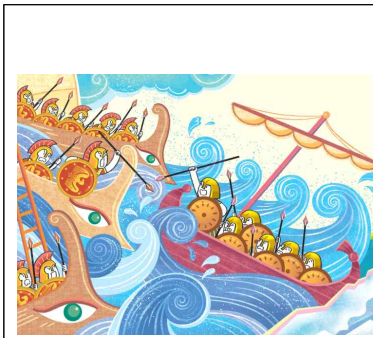
- |       |                                 |
|-------|---------------------------------|
| (1) • | • ① 로마를 이끄는 건 우리 원로원이야.         |
| (2) • | • ② 우리 평민들도 나랏일을 의논하고, 관리를 뽑았어. |
| (3) • | • ③ 전쟁이 나면 군대도 지휘했어.            |

4 다음에서 로마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아 보세요. ( )



- ① 귀족은 로마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② 로마 군대는 지켜야 하는 규율이 엄격했어요.
- ③ 로마 군대는 남자와 여자 시민들로 이루어졌어요.
- ④ 로마 군대는 여러 대형을 만들어 공격을 막았어요.
- ⑤ 로마 군인은 제멋대로 대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5 다음에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 써 보세요.



카르타고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황금이나 상아, 영국의 주석처럼 값진 물건을 사다가 여러 나라에 팔며 엄청난 돈을 그러모았어요. 또한 해군이 강해서 지중해 서부를 휘어잡았어요.  
 “우리도 바다로 세력을 뻗어나가야 할 텐데, 지중해 서부는 포에니인이 꼭 잡고 있군.”  
 로마 사람들은 카르타고의 눈치를 살피며 넘실대는 지중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6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뒤, 로마에 일어난 변화가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해 보세요.



- (1) 정복한 땅에서 밀이 값싸게 들어왔어요. ( )
- (2) 로마는 지중해를 차지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 )
- (3) 귀족이나 평민이나 로마 사람들 모두 형편이 좋아졌어요. ( )
- (4) 전쟁에서 얻은 땅을 귀족과 평민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어요. ( )
- (5)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세금을 거두고 값나가는 물건을 빼앗아 왔어요. ( )

- 7 카이사르가 혼자 권력을 틀어쥐는 이유는 로마를 위해서였을까요, 야심 때문이었을까요? 카이사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권력을 잡은 카이사르는 여러 개혁을 실시했어요. 원로원에서 논의한 내용은 그다음 날 로마 광장에 써 붙여 누구나 보게 했어요. 세금을 공정하게 거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물을 싼값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이러한 개혁은 평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귀족들은 카이사르를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러다가 왕이 되지 않을까?”

귀족들이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카이사르는 공화정 이전에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을 걸쳤고, 은화 앞면에는 왕관을 쓴 자기 얼굴을, 뒷면에는 베누스 여신을 새겼어요. 카이사르는 혼자 권력을 틀어쥐려고 독재관 자리까지 노렸어요.

- 8 다음 옥타비아누스와 관련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그는 공화정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원로원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저는 로마의 제1시민일 뿐입니다. 시민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로마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자 원로원은 기원전 27년에 ( )라는 칭호를 바쳤어요.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칭호야 어떻든, 옥타비아누스는 ( )와 다름없었어요. 이때부터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접어들어요. 결국 ( )이 무너지고 황제 한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보기>

황제

공화정

아우구스투스

- 9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어요.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콘스탄티누스가 선택한 곳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비잔티움이었어요.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에요.

“외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지형이군. 더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새로운 수도로 안성맞춤이야.”

이곳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

## 내용 정리하기

---

- 다음 로마의 문화유산 중에서 하나를 골라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 



콜로세움



아피우스 가도



판테온



수도교

로마의 문화유산

---

---

---

---

---

---

---

---

---

---

<1쪽>

(예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는 대단한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카이사르라는 인물도 알고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에요.

<2쪽>

1 ③

2 (1) 리비우스 (2) 키케로 (3) 카이사르 (4)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 (5) 랑케

3 (1) ③ (2) ① (3) ②

<3쪽>

4 ②, ④

5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중해를 통해 바다로 나가면 다른 나라와 무역하기 쉬웠어요.

6 (1) O (2) O (3) X (4) X (5) O

<4쪽>

7 (예시) 카이사르가 혼자 권력을 틀어쥐 이유는 로마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당시 로마는 귀족들은 잘 살았지만, 평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었고,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했어요.

8 아우구스투스, 황제, 공화정

9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외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지형이라서 적을 방어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해요.

<5쪽>

(예시) 콜로세움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이곳에서는 주로 검투사 경기를 벌였어요.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예요. 황제나 힘이 있는 귀족이 이곳에서 여러 행사를 열었어요. 때로는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서 모의 해상 전투를 벌이기도 했어요.